

리고, 얻은 자료에서 각 死因의 변화를 時系列的으로 분석하고 저하속도의 변화부터 시기적으로 구분한다. 이것들의 사망률의 經時的 변화와 각종의 의료기술의 도입 시기 등의 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기여도를 분석한다. 사망률의 저하, 나아가서는 인구동태는 일본의 근대화를 생각하는 점에서도 중요한 실마리이다. 또, 의료기술의 기여의 재평가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라 하겠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진화론 수용의 비교

인하대 이 성 규

과학이란 그것을 낳은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과학사 연구의 성과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학이론이 어떠한 사상적 토양에서 발생 전개될 수 있는가는 그리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본고는 한일 두나라가 진화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이로부터 진화론을 극히 서양적인 자연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원래 다윈은 생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제창하였다. 이로부터 인간 사회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바로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바, 한국과 일본에 주로 도입되고 논의된 것은 사회진화론이었다. 다윈이론은 서양에서는 격렬한 논의와 비판을 거치면서 수용되는 과정을 보여 주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확립된 진리로서 여겨졌으며, 오직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자연선택)이라는 단순화된 공식으로 되어 그것이야말로 사회진보의 유일한 길인양 강조

되면서 다양한 이념 및 주의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쓰였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진화론이 알려지는 시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진출이 가속되고 있었는데 이때에 한국의 선각자들에 의해, 경쟁에 이길수 있는 힘있는 자만이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가 설득력있게 널리 유포되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생물진화론의 수용과 논의는 극히 피상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서양에서 진화론적 논의가 당면하였고 궁극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필자는 본다. 첫째 인간은 이 자연계에서 특별하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둘째 종은 영원불변하며 초감각적인 실재이며, 셋째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완벽한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서양 생물학사를 통하여 강조되어 왔고 또 궁극적으로 진화론에 의해 부정되는 이 사상을 배양했던 것은 바로 서양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특이한 시간인 목적론적 자연관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되어 설계된 산물로서 모든 자연적인 존재는 각각 고유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타의 존재와는 이질적이고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엄격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자연은 하나의 '존재의 사다리'(Scale of Being)를 형성하고 인간은 그 정점에 있다. 목적론은 필연적으로 고유불변하는 종과 적응의 개념을 확립시켰고, 인간의 특권을 합리화시켰다. 일견하여 가장 반진화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론은 동시에 진화론을 낳아준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자연관은 유기체적인 것이다. 이같은 자연관을 소유한 두사회에 있어서 다윈이론은 어떠한 충격도 문제도 제시할 수 없는 무관심 속의 이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